

이재명, ‘이순신 호국벨트’ 횡단… 영호남 유세

NEWS

2025년 5월 15일 목요일

부산·경남 이어 오늘 광양·순천 등 서남해안 찾아
민주 “이순신 장군 호국정신 이어 위기극복 등 다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14. 15일 이틀간 부산·경남과 전남 서남해안을 돌며, ‘국난 극복 이순신 호국 벨트’ 유세를 펼친다.

조승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후보는 오늘부터 양일 간 부산에서 경남(창원·통영·거제·하동)을 지나 전남(광양·여수·순천·목포)까지 동서를 아우르는 대장정에 나선다”고 말했다.

이어 “이순신 장군의 호국정신을 이어 받아서 국난극복의 의지를 되새기고 동남권·호남권의 발전과 통합을 이루겠다는 후보의 강한 포부가 담긴 일정”이라며 “부산에서 경남, 경남에서 전라까지 위기극복 총사령관으로서 각오를 다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임진왜란 당시의 남해안 전투 지역을 동(東)에서 서(西)로 훑으며 경상도와 전라도를 가로지르는 일정이다. 민주당은 이를 ‘국난 극복 이순신 호국 벨트 유세’로 명명했다.

구체적으로 이 후보는 ‘이순신 벨트’ 유세 첫날인 이날 6·25 전쟁에 참전한 유엔군 용사가 잠든 유엔기념공원을 참배하며 부산 일정을 시작한 뒤 대규모 유세전을 펼친다.

이 후보는 참배 후 방명록에 “함께 사는

세상, 자유와 평화를 위한 고귀한 희생을 영원히 기억하겠다”고 적었다.

이어 김태유 서울대 산업공학과 명예교수와 함께 동남권의 성장 전략이기도 한 북극 항로 개척에 대해 유튜브 라이브 대담을 하며 온라인으로 국민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 후보는 “항로를 직선으로 그으면 부산이 제일 가깝다”며 “장기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방치된 상태로 초기 대규모 투자가 필요할 때 정부가 직접 참여할 수도 있다”면서 부산 표심에 호소했다.

이 후보는 경남 창원 상남분수광장을 거쳐 거북선이 있는 통영 강구안 문화마당을 찾은 뒤 김영삼(YS) 전 대통령의 고향인 거제 시내를 잇달아 방문, 조선·해양 산업, 동남권 성장 비전 제시에 나섰다.

이 후보는 창원 유세에서 “오늘부터 남해안을 따라 하는 유세 일정에 캠프가 ‘이순신의 길’이란 이름을 붙였다”며 “전 이순신을 경외한다”며 이순신 장군을 화제로 올렸다.

이어 “그분이 마지막 전투에서 패주하는 직선을 쫓아가며 굳이 왜 위험을 감수하고 사명했을까”라며 “제 입장에서 해석해보면 죽으려고 일부러 진짜 죽도록 싸운 것 아닐까. 전쟁이 끝나고 돌아갔을 때 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4일 경남 창원시 상남분수광장에서 열린 집회 유세에서 연설을 마친 후 기념 촬영하고 있다.

연합

신의 운명을 생각한 것”이라고 했다.

이 후보는 “이분이 매우 유능한 장수였는데, 도중에 모함당해 죽을 뻔했다”며 “전쟁 후에 추서를 하는데 선조가 등급을 낮게 주려 하다가 한참 후 일등 공신 비슷한 걸 줬다고 한다. 엄청나게 미웠던 것 아닐까”라고 했다.

이 후보는 “지금도 그러면 안 된다. 정치에 그림자도 있고 양지도 있다. 세도 원칙 날개도 오른쪽 날개도 있어야 난다”며 “정적을 다 없애고 입장이 다르다고 꼭 제거하는 게 가능한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존재를 인정하고 공존해야 한다. 내가 모든 권력을 갖고 민주당과 야당을 다 없애고 이재명을 없애버리겠다고 하면 정치가 되나”라며 지적했다.

그는 “빨간색을 좋아하는 사람, 파란색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지만 입장이 다르다고 뭘 그렇게 증오·혐오하고 죽이려 하냐”라며 “작은 차이를 넘어 더 나은 세상을 향해서 힘을 모으자”고 주장했다.

이어 “전 세계가 위기이고 우리가 처한 상황도 어려우니 좌우, 진보·보수, 빨간색·파란색, 영·호남, 젊은이와 노인, 남녀 이런 차이와 갈등은 인정하되 제거하려 하지

말자”며 “통합된 세상으로 손잡고 함께 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후보는 15일에는 이순신 장군 호국벨트 일정의 연장으로 전남 광양·여수·순천·목포 등 서남해안 지역을 방문한다.

이 후보는 이날 하동의 화계장터에서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하고, 경상도와 전라도 청년들과 마주 앉아 일자리와 주거, 출산, 육아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눈다.

이어 광양으로 이동해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창단한 전남 드래곤즈 축구단 구장을 방문, 철강과 물류, 해운 산업 경쟁력을 이끌겠다는 의지를 밝힐 예정이다.

다음 행선지는 임진왜란 최후 격전지였던 여수 이순신광장이다. 이곳에서 해양주권 수호 의지를 강조한 뒤 순천과 목포에서 유세를 마친다.

조 수석대변인은 “YS의 정치적 고향인 부산·거제서 시작해 이틀간 대장정을 서남해안의 관문이자 DJ의 (정치적) 고향 목포에서 마무리한다”며 “민주화와 IT(정보기술) 산업을 이끈 두 대통령의 정신을 이어받아 동서가 함께 잘 사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포부를 강하게 밝힐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성호 기자 solee235@gwangnam.co.kr

김혜경, 광주 방문…조용한 선거운동 이어가

노인건강타운 배식봉사 등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여사가 14일 광주를 찾았다.

김 여사는 이날 오전 광주 빛고을노인건강타운 구내식당에서 배식 봉사를 하며 지역 유권자들과 소통했다.

김 여사는 광주 일정을 알리지 않고 비공개로 방문했으며, 대통령선거 유세 중 이재명 후보 배우자의 첫 행보여서 관심이 모아졌다.

김 여사는 이날 1500여 명의 어르신들에게 국을 나눠드리고 따뜻한 인사를 건네며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김 여사는 어르신 한분 한분 손을 잡으면서 가정의 달을 맞아 어떻게 지내고들 계시는지 안부도 챙겼다.

당초 배식 후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식사를 할 예정이었으나 현장에서 어르신들의 사진 촬영 요청이 쇄도해 별도의 포토타임을 마련했고, 현장에는 김 여사와 기념사진을 찍기 위해 길게 줄을 선 어르신들이 장사진을 이뤘다.

어르신들은 “이렇게 호남을 찾아줘서 고맙다. 친절하고 다정해서 감동했다”면서 김 여사의 따뜻함에 박수를 보냈다.

일부 어르신들은 “이재명 후보의 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여사가 14일 광주 빛고을노인건강타운 구내식당에서 배식 봉사를 하며 지역 유권자들과 소통했다.

강도 꼭 잘 챙겨달라”며 각별한 응원과 당부의 말을 전하기도 했다.

빛고을노인건강타운 김용덕 본부장은 “김혜경 여사의 방문은 어르신들에게 큰 위로가 됐고, 모두가 오랜만에 활짝 웃는 시간을 보냈다”며 “예고 없이 이뤄진 일정임에도 따뜻하고 진심어린 모습에 모두 깊은 감동을 받았다”고 전했다.

김 여사가 찾은 빛고을노인건강타운 구내식당은 지난 19대 대선에 치러진 2017년 문재인 후보의 부인 김정숙 여사가 ‘호남 특보’를 자처하며 연일 찾았던 곳이기도 하다. 당시 김 여사는 김정숙 여사와 함께 배식 봉사를 했었다.

김 여사는 이어 오월어머니집을 찾아

5·18 유족들과 비공개 면담을 했다.

유족들을 만나 김 여사는 “절였을 때는 확 와닿지 않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어머니들의 마음이 깊이 느껴진다”고 말했다.

이에 유족들이 “사모님도 얼마나 고생이 많았느냐”고 위로하자, 김 여사는 “이렇게 응원해주시니까 힘들어도 견딜 수 있다. 제가 힘든 건 힘든 것도 아니다”고 답했다.

김 여사는 이번 대선에서 윤석열 정권의 간건외 여자 리스크가 컸던 점을 고려해 전면에서 나서지 않고, 종교계를 잇달아 예방하는 등 비공개로 조용한 선거운동을 이어가고 있다.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대선 선거벽보 광주·전남 7674곳 부착

광주시·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15일부터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의 선거벽보를 유권자의 통행이 많은 장소의 건물이나 외벽 등 광주 1474곳, 전남 6200곳 등 총 7674곳에 붙인다고 14일 밝혔다.

선거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 학력·경력·정견 및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이 게재되어 있어 유권자가 거리에서 후보자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선거벽보의 내용 중 경력·학력 등에 대해 거짓이 있다면 누구든지 중앙선거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거짓이라고 판명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한다.

아울러 선관위는 오는 20일까지 후보자의 재산·병역·납세·전과 등 정보공개자료가 게재된 책자형 선거공보를 각 가정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중앙선관위 정책·공약마당(<https://policy.nec.go.kr>)을 통해 정당의 10대

정책 및 후보자의 10대 공약도 확인할 수 있다.

광주시·전남도선관위 관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 현수막 등 후보자의 선거운동용 시설물을 훼손·철거하는 등 선거운동을 방해하는 행위(공직선거법 제240조 관련), 선거사무원 폭행·협박 및 집회·연설 등을 방해하는 행위(공직선거법 제237조 관련)에 대해 엄중 대처할 방침”이라며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이현규 기자 gnews1@gwangnam.co.kr

질병관리청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수칙

피부는 햇빛을 싫어하지만

진드기를 더 싫어합니다

예방 1

옷 제대로 입고

모자

긴팔

긴바지

등산화

목수건

장갑

땀자리

목이 긴 양말

예방 2

기피제 뿌리고

기피제 X

기피제 O

【진드기 기피제 성분 및 함량】

디에틸톨루아미드(DEET) 7~30% 이하 : 달진드기, 참진드기

이카리딘 : 7% (달진드기), 15% (참진드기, 참진드기)

IR3535 : 12.5% (달진드기), 14% (참진드기, 참진드기)

*프로파누시드(참진드기), SFTS(참진드기)

예방 3

풀숲 피하고

진드기

풀숲

예방 4

털고, 씻고, 발라하고

에어컨으로 진드기 달기

전신 샤워 및 진드기 찾기

아외복 분리 세탁하기